

지자체소식



국내 최초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국내 최초로 소양호를 비롯해 도암호와 임하호, 광주광역시 등 총 4238.67km² 면적이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소양호 탁수오염원인인 고랭지밭에서 유출되는 토사 등 비점오염원에 의한 수질오염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들 지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54조에 의해 23일자로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달성해야 할 수질개선 목표를 설정,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이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소양호의 경우, 비가 내리면 댐 상류유역에 위치한 고랭지밭 등에서 다량의 토사가 유입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태풍 '에위니아'로 발생한 산사태 등의 수해로 막대한 양의 토사가 유입돼 호소내 탁도가 328NTU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실정이다. 또 도암호는 댐 상류지역에 위치한 고랭지밭, 축산농가 등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퇴적돼 호소내 부유물질이 수질환경기준 II 등급을 초과하는 등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

임하호도 댐상류지역에 위치한 고랭지밭 등에서 다량의 토사가 유입되고 있다. 지난 2002년 태풍 '루사' 및 2003년 '매미'로 발생한 탁수가 장기화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에는 광주광역시를 관통하는 영산강의 수질오염이 악화돼 BOD가 수질환경기준 II 등급을 초과하고 있다. 특히 수질오염의 주된 원인이 도로, 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로 나타나고 있다.

환경부 이성한 수생태보전과장은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소양호, 도암호, 임하호, 광주광역시에 대해서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등

의 비점오염저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환경부장관이 10월까지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을 마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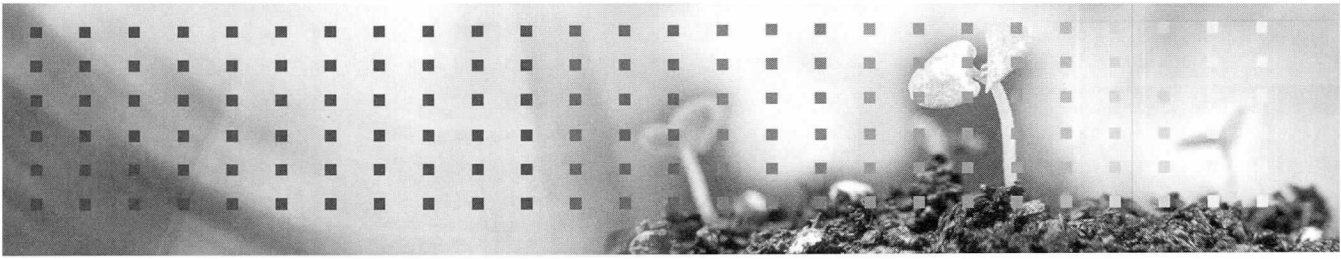
서울시, 온도 1℃ 낮추기 위한 인공 녹화터널 『에코터널』설치



우리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공동위원장 윤준하·손경식·오세훈)는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한 시민참여 캠페인으로 서울의 도심온도를 1℃ 낮추기 위해 지난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서울광장에 『에코터널』을 설치했다.

『에코터널』은 콘크리트 도시를 생태적이며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복원하고자 친환경소재(폐목재, 담쟁이덩굴, 대나무 등)를 활용하여 인공적으로 제작한 이동식 인공 녹화터널을 말한다(첨부 이미지 참조).

터널은 3m(H)×7.2m(L)×2m(W) 크기로 목재 구조물을 세운 후 상부에는 경량형 나무, 잔디 등을 이



용하여 옥상녹화하며, 측면은 담쟁이 넝쿨 등 넝쿨 식물과 대나무 등을 이용하여 설치된다.

『에코터널』은 콘크리트 포장 광장에 녹색의 휴식 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그늘 제공을 통해 무더위를 시원함으로 바꾸어 시민들에게 녹지의 청량감을 주며,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한 10대 시민실천사항(5Down 5Up)을 홍보·교육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5Down 5Up’은 서울온도 1℃를 낮추기 위한 10대 시민실천사항으로 차량·콘크리트포장·에너지·쓰레기·녹지파괴 줄이기(5Down)와 생활권녹지·옥상녹화·신재생에너지·녹색교통·녹색상품구매 늘리기(5Up)를 중심으로 일상생활에서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요령을 담고 있다. 아울러 행사 기간내 터널을 방문하는 시민들은 운영자로부터 관련 자료와 설명을 들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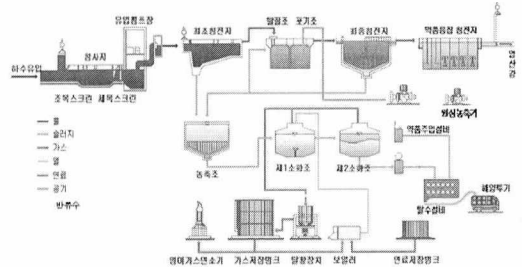
또한, 터널내 “서울온도 1℃ 낮추기 실천서약대”를 운영하여 5Down 5Up 실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한다.

녹색위는 서울광장에 이어 8월말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하거나 많은 시민들이 모이는 장소 중 주변에 그늘이 없어 열섬현상이 나타나는 지역을 조사하여 오는 9월중 『에코터널』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녹색위는 『에코터널』을 통해 도심에서 녹지보전 및 확충의 중요성을 홍보하며, 나아가 시민들이 일상생활속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녹지확보방법 및 환경친화적인 생활 실천지침 등을 소개하여 맑고 깨끗한 서울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한다.

앞으로 위원회는 서울온도 1℃를 낮추기 위해 『에코터널』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을 조사하여 2008년 시민단체 참여 공모사업으로 지역의 자투리공간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광주시, 하수처리장 시설개선으로 60억원 예산 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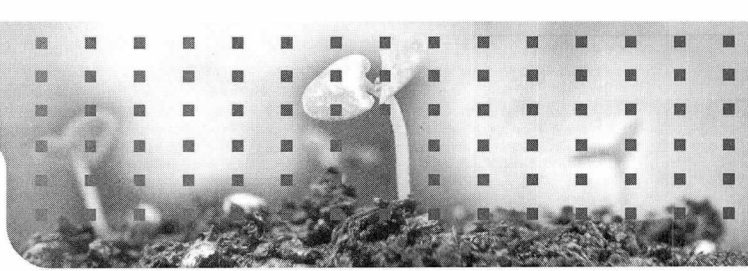
광주시는 하수처리장 기존시설 보완 및 공정개선을 통해 법적 방류수 수질을 큰 폭으로 향상시켜 당초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서 시설기로 확정된 광주 제2하수처리장(12만톤/일) 여과처리 시설을 유보함으로써 기 확보된 예산 60억여원을 절감하게 됐다.

환경부에서 정부 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수질오염총량제는 영산강 수질을 현재의 BOD 8.2ppm에서 5.6ppm으로 낮추기 위한 사업으로써 광주시에서는 2010년까지 5,605억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장 여과처리시설, 관거정비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광주 제2하수처리장 여과처리사업도 이사업의 일환으로 계획되어 용역과제 심의와 지방투융자 심사를 마치고 2007년도 예산에 설계용역비와 공사비 일부가 확보된 상태다

그러나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수질보전과와 환경시설공단에서는 2007년 1월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면서 기존시설을 보완하고 공정개선에 필요한 시설을 추가하면 하수처리효율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였고 수차례에 걸친 회의와 자료수집, 전문가 자문, 하수처리 효율향상을 위한 공정분석·검토 등을 통하여 개선내용을 확정하고 금년 1월부터 7월말

지 자 체 소 식



까지 2천여만원을 투입하여 시험·운영한 결과 여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도 광주 제2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이 2006년 평균 BOD 5.2ppm에서 BOD 2~3ppm으로 개선됨에 따라 여과처리시설 설치비용 60억원을 절감하게 됐다. 향후 더 안정적인 처리수질 확보를 위하여 공정 및 시설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참고로 수질오염총량제에서 규정한 수질은 2009년 1월부터 BOD 4.6ppm 이하로 방류하여야 하며,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할 경우 환경부로부터 총량부과금이 부과된다.

대전시, 시민휴식공간 곳곳 숲속문고 운영

대전광역시 일원의 시민공원과 휴양림 등에 숲속문고가 운영된다.

대전시는 지난달 '책 읽는 도시 대전' 운동의 일환으로 개장한 장태산휴양림 숲속문고가 시민들의 호응이 높아 하반기중 시민공원과 타 휴양림 등으로 숲속문고를 확대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하반기부터 현재 장동산림욕장, 장태산자연휴양림 숲속문고에 더해 보문산 공원, 만인산자연휴양림, 상소동산림욕장은 오는 10월까지, 성북동산림욕장은 내년 상반기중 개장하는 등 4개소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많이 찾는 휴식처를 중심으로 간이문고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이 휴식과 함께하는 건전한 여가문화조성 및 책 읽는 분위기 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산 수출 상승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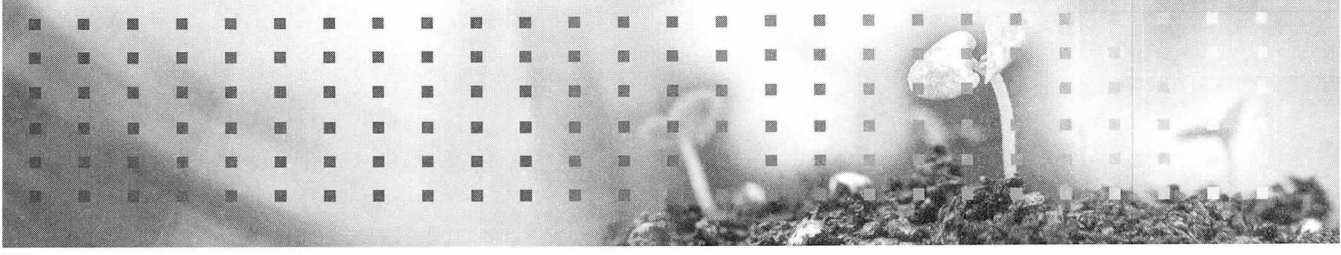
2007년 7월 부산지역 수출은 선박, 철강, 승용차 등 수송기계분야와 수산물, 산업기계, 항공기부품 등 고른 호조세에 힘입어 전국최고의 증가율(35.4%)을 기록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7월 지역기업 수출은 전년동기(2006.7) 대비 최고의 증가율과 아울러 월별기준 최대금액인 980백만불을 기록하였으며, 7월말 현재 누계기준으로도 전년 동기 대비 27.1% 증가한 5,747백만불을 기록했으며 부산지역 수출의 전국 대비 점유율 면에서도 최대인 3.2%를 기록했다.

7월말 기준 주요품목별로는 선박, 주단강, 승용차 등 수송장비, 철강제품, 기계공구, 산업기계등 대폭적으로 증가한(선박·승용차 등 수송기계 46%, 주단강 등 철강 43%, 기초산업기계 43%, 수산물 25%), 반면 인쇄회로, 의복제품 등의 수출이 약간 감소(인쇄회로 32%, 편직물 19%)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지역)별로는 상위 5개 수출국은 중국, 일본, 미국, 싱가포르, 베트남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증가율 면에서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폴란드, 영국, 인도, 파나마 등으로의 수출이 대폭 증가한 반면, 독일, 홍콩의 경우 증가율이 감소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륙별로는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대양주로 수출이 급증하는 등 수출지역이 다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상승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수출전략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FTA체결 확대, 유가등 원자재수급, 외환관리 등 글로벌무역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제주경제 발전을 위한 「제주경제포럼」 발족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난 8월 22일 각종 경제 관련 현안과 경제발전을 위해 전문가들과의 다각적인 논의를 통해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주경제포럼”을 한국은행제주본부와 공동으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발족한 제주경제포럼은 제주발전연구원, JDC,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제주지식산업진흥원 등 연구기관, 학계의 교수, 도의 관련국장 등이 회원으로 구성되었으며, 회장은 도지사과 한은제주본부장이 공동으로 맡게 되었다.

제주경제포럼 회원들은 제주경제의 현안과 장기 발전방향 등에 대한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김태환 도지사도 지역경제의 비전을 제시하는 “제주경제의 콘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길 당부하였다.

앞으로 제주경제포럼은 정례적인 모임을 통하여 주요 관심사에 대한 주제발표, 토론회 실시와 포럼이 성숙단계에 접어들면 세미나 등도 개최하여 제주 지역의 “콘트롤 타워”로 자리매김 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 혁신도시 제2차 정책 토론회 개최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발전연구원, 전북혁신도시 민관학공동위원회에서 공동주관하는 전북혁신도시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는 내용으로 제2차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역에너지 부분도입과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구축 및 제도화 방안과 효율적인 이용방안에 대한 주제를 놓고 토론을 하여 최적의 환경조성을 갖추고 환경도시 육성의 길을 모색하고, 화석연료 소비를 줄이고 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과 화석연료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혁신도시 미래가치를 선도하는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가야 한다는 토론이 있었다.

또한 혁신도시 실시계획 수립단계에서 공공건축물과 주거단지에 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용 구축 방안, 에너지 효율화 방안 건물 관련 제도 혁신도시의 솔라시티화 정책,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 등의 정책을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토론했었다.

이번 토론은 지역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혁신도시 건설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민관학 협력 방안을 모색하여 바람직한 혁신도시 건설계획을 수립해 지역 성장 동력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거버넌스 기반을 구축한 것이다.

따라서 전라북도에서는 이러한 토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건교부와 토지공사에 제시하여 실시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